

지난주 설교 요약 * 성경 : 눅 6:20~26 * 제목 : 가난, 복인가 저주인가

1. 가난이 정말 복인가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은 우리 생각으로는 저주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저주는 우리 생각으로는 복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미움 받는 자'입니다. 반면에 '화로다'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를 보십시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타락한 관점인지를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나의 생각과 관점이 얼마만큼 타락한 죄성에 기초해 있는지를 깨달아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인가 부요함이 복인가를 논하기 전에 부요함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자리에 거하며, 하늘의 관점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2. 현실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소망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그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하늘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인지, 어떤 자가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그 날'을 인식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배고픔을 갖고 살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그 날'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게 한다면 이 땅에서의 부요함은 저주, 화가 됩니다.

네 개의 복과 관련해서는 나오지만 네 개의 화에는 나오지 않는 두 번째 단어는 '인자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가난, 굶주림, 울게 됨, 미움 받음은 복이 됩니다.

순모임 질문 (8월 6일 설교)

- 이번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오늘 설교 말씀중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이번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023년 표어** - "씨를 뿌리고"
- 비전헌금** -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립니다.
- 고 3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중보기도합니다. * 김하은, 박성현
- 매일성경 판매** * 가격 : 5,000원
-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시간 : 토 오전 10시 (악기 무상 대여)
-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선교지 소식

오테기 선교사
8월부터 인도네시아 CCC와 함께 취업비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 양육 프로그램 안내 ●

1. 새가족과정(green family)
2. 일대일 동반자과정
3. 일대일 양육자과정
4. 성서지리와 역사
5. 행복한 부부학교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3부, 젊은이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유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1층 새싹홀
꿈땅예배	주일 오전 11:00	3층 비전홀
파워웨이브	주일 오전 9:00	3층 비전홀
새벽기도회(월~금)	매일 새벽 6:00	본당
수요 오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본당

● 섬기는 분들 ●

목사 나계수, 김대중
Pianist 김효성, 박소영
협력선교사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테기(인도네시아)
 이은주(캄보디아)

나계수 목사는 명지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습니다.
 은누리교회와 웅공제일교회를 거쳐 수원 은누리비전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5년에 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그린교회는 2010년 7월 3일 창립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공동체, 삶이 변하는 제자양육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개혁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섬김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에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2023 씨를 뿌리고

-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 제자양육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선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교회개혁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공동체

2023년 8월 6일 / 제 14권 32호

새벽기도회
 새벽 6:00
 월~금(매일성경)
 설교 : 나계수 목사
 예레미야 강해

수요 성경통독 예배
 당분간 쉽니다.

수요 순장모임
 저녁 8:00
 인도 : 나계수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8:00
 램 19:1~13
 '죽임의 골짜기'
 설교 : 김대중 목사

순예배
 순 방학기간입니다.

인도 : 나계수 목사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

선포
 부름 우리 왕이여 / 임재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찬양 다함께

통성기도 다함께

기도 박완희 집사(1부/2부)

광고 인도자
 좋으신 하나님

설교 1부/2부 녹 6:27~35 나계수 목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결단의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다함께

★ 헌금기도 인도자

★ 축도 인도자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 * 8월 13일 대표기도 : 신현경 집사(1부/2부)
- * 8월 20일 대표기도 : 박상규 집사(1부/2부)
- * 안내위원 : 그린케어팀
- * 헌금위원 : 신소라 / 송은혜